

후보폭행·동원선거·후보매수...막판 혼탁

광주·전남, 새정치·무소속 치열한 비방전 기초장 선거전 고소·고발...경찰 수사까지

6·4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불법·혼탁선거가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후보 간 혈투를 벌여지고 있는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전에서는 고소·고발과 의혹 제기가 난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과 의혹들이 선거 막판 승패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며 나아가 선거 이후 당선자에게 영향을 미쳐 재보궐선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이근우 광주시당 공동위원장은 1일 "지난 31일 오후 3시 40분께 서구 양동시장 파출소 앞 건물목에서 무소속 서구정장 특정 후보 지지자로

보이는 50대 과한이 새정치민주연합 운영진 서구 기초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를 폭행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운 후보가 임우진 서구청장 후보 부인과 함께 양동시장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과한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라고 주장했다.

광양시장 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 김재무 후보와 무소속 정현복 후보 간에 부동산 투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29일 "정 후보와 배우자 명의로 서울에 수억원대 아파트 두 채가 있는데 정 후보는 임대아파트에 산다"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정 후보

측은 "김 후보가 2011년 봉강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했다"며 김 후보의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봉강 땅은 2008년 4월 구입, 2009년말 매각해 2011년 부지를 선정한 전원마을사업과는 관련 없다"며 "시세차익도 45만여원이어서 투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정 후보 측을 공직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선관위에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검찰에 이첩됐다.

곡성군수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에서 동원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곡성경찰서는 지난 30일 무소속 허남석 군수 후보 측이 택시를 이용해 유권자를 동원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성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들어와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은 후보 측과 관련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흥에서는 한 군수후보 측이 유권자를

상대로 음식 점대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수백명의 명단과 전화 및 계좌번호, 부녀회 식사 숫자 등이 적혀 있는 서류를 확보,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박병중 후보 측은 1일 "지난달 30일 도양읍 박 후보 지인 A씨 사업장에 김학영 후보와 선거운동원이 무단 난입, 서류를 절취해 가고 그 자리에 있던 박 후보 찬조연설원을 폭행했다"며 "선거와 아무 상관없는데도 의혹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폭행 피해자 2명은 고흥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후보매수 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영광군수 선거의 경우 전남도선관위가 이날 자신의 동생인 정기호 영광군수의 사퇴를 조건으로 상대 후보에게 요양병원 운영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 시도교육감

이병완 “공적 언행 기록하는 시정기록관제 운영”

이병완 무소속 광주시장 후보는 1일 '광주시민께 띄우는 네 번째 편지' 공적자편을 통해 "시정기록관제도를 도입해 시장과 시장의 공적언행을 모두 녹음·기록해 책임지는 시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장의 독단과 독선을 배제한 토론문화 정착을 시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설정해 '받아쓰기' 공직문화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장휘국, 버스·지하철 타고 시민 '경청투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1일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가깝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듣기 위해 3일까지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시민들과 만나는 '경청 투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광주교육의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참교육 40년 인생을 걸어서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항상 광주 시민이었다"고 주장했다.



양형일, 무박 3일 72시간 민심 대탐방 나서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1일 "3일 자정까지 인력대기소, 시내버스 차고지, 시장, 맥가골목, 지하철역 등 도심 구석구석을 누비며 '무박 3일 72시간 민심 대탐방'을 펼치겠다"며 "20~30%대에 이르는 부동산을 집중 공략해 지지세를 확산·결집시키는 한편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만채 “전남교육 명예의 전당 건립”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1일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교육보훈자를 기리는 '전남교육 명예의 전당'을 반드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보훈자'로 선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또한 '교육보훈자'로서 역사에 길이 남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초단체장

노희용 “동구 문화체육공원 추가 조성”

노희용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1일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는 동구 남문로 옛 워생매립장 부지를 찾아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이어 2단계로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노 후보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복지의 핵심요소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체육관과 공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미화 “민주당 20년 독점으로 동구 쇠퇴”

통합진보당 김미화 광주 동구청장 후보는 1일 용산체육관에서 열린 '동구 450 축구대회'에 참석해 "동구는 지난 20년간 민주당이 독점해왔는데, 이 때문에 쇠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현재 동구는 10만2000명으로 인구가 감소해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이 낙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2선 군수의 '이상한 퇴임'

박우량 前신안군수 주소지 이전으로 군수직 상실

지역민 "이해 안돼"...일각선 유병언 관련 수사설도

박우량 전 신안군수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면서 군수직에서 자동 사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년 동안 군정을 맡았던 2선 군수가 3선이 유력한 상태에서 두 차례나 후보직 출마를 포기한 데 이어 퇴임식도, 한 달간의 재임기간도 모두 포기하고 갑자기 지역을 떠난 것이다. 단체장이 사법처리나 질병 등이 아닌 이 같은 방법으로 사퇴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다.

박 전 군수는 "가족들이 더 이상 군수직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 직원들과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박 전 군수는 지난 달 19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직을 사퇴함과 동시에 군정을 찾아 거주지를 서울로 이전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개인 신상문제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선출된 지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자동 사퇴한 것으로 본다.

박 군수는 이후 모든 연락을 끊었다가 최근 한 후보의 지지메시지를 일부 지지자들에게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갖가지 유

언비어가 나돌고 있으나 가족들의 반대 가장 큰 사퇴 사유"라며 "지지 메시지도 박 전 군수의 지지자들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 이모(57)씨는 "뺨아준 주민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퇴임식에서 명예롭게 물러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8년이나 지역을 이끌었던 사람이 서울로 이사하면서 퇴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일각에서는 도피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연관되는 기독교복음침례회가 박 전 군수의 재임시절인 지난 2012년 도초면 외남리 350만㎡ 규모의 돈암연장을 허가받아 매년 220만kg의 전일염을 생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찰수사를 받았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가족(부인)이 병마로 갑작스럽게 위독하게 돼 가장으로 직접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며 "선거운동과 군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돼 군수선거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반복,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등록했지만 또다시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광주일보에는 박 군수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정재 광주시장 후보 '나홀로 선거'

여당 불모지 두자릿 수 득표를 관심

새누리당 이정재 광주시장 후보의 '나홀로 선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여당 불모지인 광주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위한 그의 선거운동이 이채롭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광주시 서구 기아자동차 공장 사거리에서 매일 아침 출근길 인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완성'을 위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진정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이 새누리당 지역공약실천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올해 연구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만든 만큼 '자동차 100만대 도시' 완성은 자신이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이같은 선거운동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2일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그 흔한 유세나 대규모 선거운동 없이 '나홀로 선거'를 하는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지원 유세도 특별하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1일 광주 전역에서 새누리당 이정재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한 정당 소속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1인 유세를 실시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내 교차로에서 인사를 하며 나홀로 선거유세를 벌이는 새누리당 이정재 광주시장 후보.

부실채권(미회수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미회수대금

- 수수료(회수금액의 30%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국가기공인 자격증 소지자 직접 추심

-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세일신용정보(주)
062)385-0006, 010-4608-6061 (담당:김정수)

2010년 6·2 지방선거 저작권협회 추정 로고송제작 "전국 1위"

2,000곡을 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 (6개 녹음실 보유)

선거로고송 선거차량 UCC로고송 선거홍보영상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1위 선거전문 기획사

BIG 기획
062-651-7411, 010-5022-7400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한 빛 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다성드림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김스타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혁신도시 토지, 상가, 아파트 주변토지 다량보유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다시살아나는 부동산 시장!!
2014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신투자전략 무료 대특강

99% 적중률 최고의 부동산 실전문가 김영표 대표가 말하는 소액으로 생겨남 속아나는 월세나오는 부동산을 찾아서...
중자돈 3천~1억으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장소	NC백화점(구현대백화점) 10층 문화센터
일시	2014.5.29(목) 2시/7시 선택
문의전화	062)383-1330(사전예약)

강의/내/용

- 2014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투자전략 대공개
- 광주·전남 토지투자 새로운 전략 및 뜨는지역 대공개
- 광주·전남 지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주택시장 투자전략
- 수익형 부동산 틈새 아이템 투자전략 대공개
- 3천~1억 토지투자자 월세받는 투자비법 공개
- 개발지 성공투자하는 비법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현)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영지부동산 아카데미 소장
(현)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다수특강
(현)전국순회 부동산세미나 80회 이상

NAVER 영지R&D 부동산투자연구소